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14호](2014.10/11)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홍보
팀

일년간의 정진결실을 부처님께 보고드린 일여축제 11월 2일 전국에서 일제히 개최

빨강고 노란 단풍이 전국을 울긋불긋하게 장식하고 있는 계절을 맞이하여 진여원에서는 금년 1년간의 정진실적을 부처님께 보고드리는 일여축제가 11월 2일 전국의 포교소에서 개최되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많은 결실이 이루어졌다. 1월 전국에서의 한수행에 이어, 3월에는 존상참배가 서울포교소에서 1개월간 개최되었다. 7월에는 부산정사 봉안법요가, 8월에는 부산정사 봉안법요 기념 감사행사가, 9월에는 청년회 60주년을 맞이하여 아시아 청년들의 모임인 AYG가 부산정사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적 규모의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국내 불교 종단에서도 진여원에 많은 관심의 표명이 있었다.

특히 부산에서는 11월 2일, 1년간의 정진내용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부처님께 보고드리고, 사진전시 및 음식공양도 마련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충본산에서는 7월 복건접심도량 입불개안법요, 두 법사님의 산수·회수 축하, 8월에는 창공지장보살 입불개안법요, 9월에는 남미 페루에서의 제섭호마, 뉴욕에서의 피안회 등 큰 결실을 거둔 후 11월 3일 어버이와 자식들이 일체가 되어 행하는 변론대회를

개최되어 청년교도들이 스스로 연마한 신앙의 기쁨이 피로되기도 하였다.



<응현원에서의 일여축제 법요에 꽃을 뿌리며 한해 결실의 기쁨을 함께 나누다>

이렇게 커다란 결실을 맺고 있는 진여원 전체의 중요행사와 함께 교도 개개인의 정진도 향상된 것으로 기대된다. 상승에자 참석 교도들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고, 상승하는 교도들도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서원(誓願) 했던 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종정스님께서서는 “아직 늦지 않습니다. 2개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올해를 돌이켜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남은 기간 조금이라도 실천하면 상주의 범부모님과 두 법사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는 서교를 주시며, 11월, 12월 동안의 박차를 부탁하셨다.

10월 본에자 개최, 12명이 상승

지난 4월에 이어 10월에 개최된 본에자에서 다수 교도가 새로운 영위를 상승받았다. 25일, 26일 진여원부산과 서울포교소에서 본에자가 각각 개최되었다. 서울에서는 대승 3명, 환희 2명이 상승받았고, 영능발동특별보다이에는 3명이 통과하였다. 부산정사에서는 대승 5명, 환희 2명이 상승하였고, 특별보다이에는 1명이 통과하였다.

전선희 사무국원, 신초지 별원의 제등호마에 승사로 참석

지난 10월 4일 야마나시 신초지 별원에서 개최된 제등호마법요에 전선희 사무국원이 한국을 대표하여 승사임무를 완수하였다.

승사(承士)란 법요의 장엄을 위해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제등호마 때에 백의차림으로 도사를 호마단으로 인도하고, 호마단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식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날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종정스님을 모신 두 명의 승사가 있었는데, 1명이 전선희 국원, 다른 승사는 타이완 교도이었다.

2014년도 9명이 교사보임

10월 24일 일여기념 법요시에 행해진 서울포교소의 교사보임식에서 고성자, 김형태, 김희운, 이국남, 홍혜진 교도가 교사로 보임되었다. 1주일 전인 20일에는 부산정사에서 교사보임식이 행해져 김하연, 성옥자, 이흥철, 정강자 교도가 교사로 보임되었다.

교사는 진여 가르침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자격보유자를 의미하는데 지류학원(智流學院)에서 본과, 수양과, 연구과를 모두 졸업하게 되면 율사(律師) 승계(僧階)와 함께 받게 된다.

<신노엔부산 일여축제(11월 2일)>

감사의 글(김영훈 교도)

오늘은 진여원 삼대제(三大際)의 하나인 일여축제입니다. 일여축제를 맞이하여 감사의 글을 올리게 된 것을 신노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게이슈사마께 감사드립니다.

일여축제는 추계(秋季) 대제로, 수확의 가을에 일년의 정진의 결실을 부처님께 보고드리는 귀한 대제입니다. 청년 60주년인 올해, 그리고 내년 복건 신초지 낙경을 향해가는 지금. 한국 부산에 열반부처님을 처음으로 모시고 첫 정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일여축제가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신노엔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이슈사마께서는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조이신 쇼쥬신인 사마께서는 평생을 주위분들의 말씀과 작은 친절에도 감사해 하셨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생활하셨습니다.

저는 신노엔의 가르침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심수행에 정진하며 받은 영언을 실천하여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사유를 하며 실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실천에 노력하자 기쁜 마음이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기쁨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힘들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들인데 무슨 감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상승에자에 정진하게 되자 다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게 되고, 다 듣지 못했던 소리를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신노엔에서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대해 사유하며 감사를 깊이하려고 정진해가고 있습니다. 자주 귀원하지는 못하지만, 유상점심과, 일상생활에서는 무상점심을 깊이하려 노력하며, 참마음으로 인도해주시는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게이슈사마의 일상을 모범으로 삼아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노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게이슈사마, 교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부산 정사를 지켜가기 위해 정법호지에 노력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노엔부산 일여축제(11월 2일)>

감사의 글(김민자 교도)

성지순례단 증가
제등호마에 참좌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9명 교도가 성지순례를 행했다. 김형태, 이국남 교도를 비롯한 9명의 교도로 결성된 성지순례단은 교토의 제호사, 칸사이본부, 유음정사, 그리고 타치카와의 총본부, 점심도량, 응현원, 동경의 우심원, 야마나시의 신초지 별원 등을 5박 6일의 코스로 순례하는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성지순례를 통해 감동적인 체험이 전해지 이야기 이번을 계기로 성지순례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여축제인 오늘, 감사의 글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을 신노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게이슈사마, 호법선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정진하고 계신 교도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훌륭한 부산 정사에서 제섭, 접수, 발고대수의 힘을 받고 정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영능을 목표로, 무조건의 정진을 해 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정진해 가면서도 힘이 들 때에는 산다이와, 고레이쥬를 마음 속으로 외워가며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법무모님께서는 저를 영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게이슈사마를 따라, 끝까지 이 가르침을 더욱 더 익히고 배우며 정진해가겠습니다.

신노엔의 가르침에는 상대를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가족과 직장, 이웃과 함께 우심 화합 해 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신노엔의 가르침을 믿고 정진하며 행복이라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열반 부처님이 모셔져 계신 이 부산 정사에 고레이쥬 소리가 넘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영조님을 생각하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존중하며 가르침을 실천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정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노엔부산 일여축제(11월 2일)>

감사의 글(김민자 교도)

일여축제인 오늘, 감사의 글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을 신노 소오야사마, 료도지사마, 게이슈사마, 호법선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정진하고 계신 교도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훌륭한 부산 정사에서 제섭, 섭수, 받고대수의 힘을 받고 정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영능을 목표로, 무조건의 정진을 해 가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정진해 가면서도 힘이 들 때에는 산다 이와, 고레이쥬를 마음 속으로 외워 가며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법부모님께서 저를 영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게이슈사마를 따라, 끝까지 이 가르침을 더욱 더 익히고 배우며 정진해가겠습니다.

신노엔의 가르침에는 상대를 존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가족과 직장, 이웃과 함께 우심 화합 해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신노엔의 가르침을 믿고 정진하며 행복이라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열반 부처님이 모셔져 계신 이 부산 정사에 고레이쥬 소리가 넘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영조님을 생각하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존중하며 가르침을 실천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정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정사 AYG>(2014.9.26~27) 이모저모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아시아의 진여 청년들>



<경주 불국사 다보탑 앞에서 원하트가 된 아시아의 진여 청년들>



<보전에서 그룹별로 진지하게 대화하며 교류하는 아시아의 진여 청년들>



<아시아의 진여 청년들, 열반존상 앞에서 원하트가 되다>

<부산정사 AYG>(2014.9.26~27) 이모저모



<2014년 아시아 청년들의 모임 (AYG)이 부산정사에서 개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아시아의 진여 청년들>



<아시아의 진여 청년들, 본인확인 위해 질서정연하게 기다리는 모습>



<세계 진여 청년들을 위해 깔끔하게 차려진 한국의 대중 전통음식>



<AYG에 참가한 국가들의 세계지도 표시>



<부산정사 경내를 가득채운 아시아의 진여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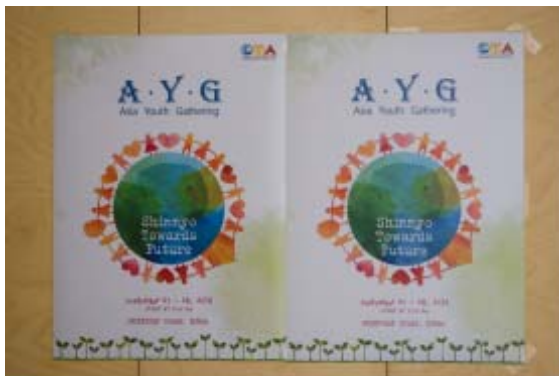
<부산정사 AYG>(2014.9.26~27) 이모저모



<부산정사 복도로 이어지는 계단을 가득메운 아시아의 진여 청년들>



<보전에서 그룹별로 진지하게 대화하며 교류하는 아시아의 진여 청년들>



<AYG 홍보용 포스터>



<경주 불국사 사천왕상을 관람하는 아시아의 진여 청년들>



<불국사 다보탑 앞에서 원하트가 된 아시아의 진여 청년들>



<아시아의 진여 청년들, 열반존상 앞에서 원하트가 되다>